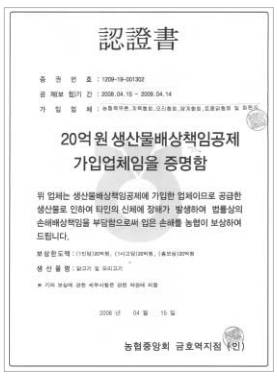
AI배상책임보험 가입

닭고기 안전성 홍보


認證書

증 권 번 호 : 1209-19-001302
공 제 보 험 기 간 : 2008.04.15 ~ 2009.04.14
가 입 업 체 :

20억원 생산물배상책임공제
가입업체임을 증명함

위 업체는 생산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업체이므로 공급한 생산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농협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 상 한 도 액 :
생 산 물 명 :

2008 년 04 월 15 일

농협중앙회 금호역지점 (인)

본회를 비롯 한국오리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5개 가금관련단체들은 지난 4월 15일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고 AI(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최대 20억원까지 배상해 주는 'AI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계약기간은 2008년 4월 15일부터 2009년 4월 14일까지 1년간이다. 'AI배상책임보험'은 소비자들이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사먹고 AI에 감염됐을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받는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먹은 사람이 AI에 감염돼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가금축산물의 소비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이뤄졌으며, 닭이나 오리가 AI에 오염됐다 하더라도 70℃에서 30분, 75℃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이들을 익혀 먹으면 안심해도 된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등의 섭취로 인한 전염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가금관련단체·업계, HPAI 공동 대응 긴급 대책회의

대 언론 홍보활동 펼치기로

본회를 비롯해 가금관련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4월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HPAI 발병에 따른 소비위축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석희진 축산정책팀장과 노수현 축산경영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와 양계협회, 오리협회, 계란유통협회, 토종닭협회 등 가금관련단체와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성화식품 등 닭고기 계열업체, 제너시스, 네네치킨 등 치킨외식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HPAI가 갈수록 확산됨에 따라 살처분 수수가 급증하고 소비가 급감하는 등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어 업계가 공동으로 소비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HPAI와 관련 보도가 늘어날수록 소비자들의 가금 산물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는 AI로 인해 인체감염이 발생되지 않

은 만큼 AI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대 언론 홍보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AI 비상 상황근무

유관기관과 신속한 업무처리

본회는 지난 4월 5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지난 1일 AI가 전북 김제 소재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으로 판명되어 회원사와 축산정책단, 수의과학검역원 등과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치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가금산물 일일 가격 및 수급동향을 각각 산지가격 및 도계 수수 동향과 생계시세를 전년동기, 전주평균, AI발생일, 전일 등으로 구분·조사 보고하고 있음은 물론 주요업체의 주문 감소에 대한 동향 파악을 보고해 회원사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현재 AI가 전남과 경기지역 등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국가위기관리대응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발령됨에 따라 본회는 유관기관 및 축산관련 단체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AI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송 3사 및 중앙일간지에 호소문 전달

AI 확대보도 자제 요청

본회는 지난 4월 8일 가금관련 4개 협회와 공동으로 AI관련 보도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언론기관에 전달했다.

AI 발생에 따른 언론사들의 연이은 보도 행태로 인해 AI발생으로 인한 피해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가금육 섭취를 기피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농가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AI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 3사(KBS, MBC, SBS) 방문

AI 관련보도 자제요청

본회는 지난 4월 2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와 함께 KBS, MBC, SBS를 방문해 각사의 보도국 관계자들을 만나 AI 관련 보도를 자제하고, 안전성을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서성배 회장은 "AI 발병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관련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방송사들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AI 안전성 홍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MBC 보도국장은 "가금육 소비 감소로 농가와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앞으로는 가금육 안전성 홍보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 "잘못된 보도가 있을 때 연락을 통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8일 본회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호소문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의 협조가 미흡해 방송 3사의 적극적이 협조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이다.

AI 방역대책 협의를 위한 일일 대책회의 참석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전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지역의 AI 발생 확인 이후 발생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인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 AI 발생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 4월 17일부터 일일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 본회에서는 매일 오후 5시 회의에 참석해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고, 조치사항을 신속히 회원사에 전달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협조공문 발송

닭고기 소비확대 협조요청

본회는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AI를 염려하여 닭고기 단체급식을 자제토록 하고 있는데 대해 이를 철회해줄 것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공식 요청했다.

본회는 지난 4월 AI의 발생으로 육계 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닭고기 소비마저 크게 줄어들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는 절대 안전함을 강조하고 닭고기 소비활성화가 농가의 고통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 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위로방문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AI 대처방안 협조

본회는 농림수산식품부 AI 특별방역대책상활실을 주1~2회 위로방문하고 있다.

AI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본회와 AI특별방역상황실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실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어 회원사들의 AI 방역대책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음식점 원산지표시 전사업장으로 확대 요구(보건복지가족부)

본회는 지난 4월 16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와 관련,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영업장의 규모를 닭고기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면적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현 개정안에는 축종에 관계없이 300㎡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닭고기의 경우 배달위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원산지표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본회는 닭고기의 경우 배달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배달용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